

일 주 문



설맞이 떡국 대중공양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
성 스님은 2월 19일 도선사 후원으로
2500명 제조자 전체에게 올미년 설날
떡국 대중공양을 한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6기 졸업식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조
계종 고시위원장) 2월 11일 서울 법원
사에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 6기 졸업
식을 진행했다.



2015 파라미타 정기총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
님은 2월 7일 동국대 상록원 교수식당
에서 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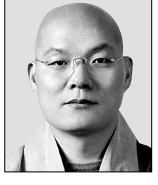
신흥사 화재예방 캠페인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월
29~30일 화재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지역 내 노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 '순간
순간 불조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7회 불교문화상품전 전시회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 스님은 2
월 28일까지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제7회 불교문화상품전 수상작 전시회
를 개최한다. (02)2031-2000



제5회 리틀북다 합창단 정기공연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2월 7
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제5회 약천
사 리틀북다 어린이 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ARS 후원전화 개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2월 5일 복지재단 ARS후원전
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ARS 후원은
1666-5401이다.



장학금 2억 4천만원 기부
포항 월별사 주지 해운 스님은 1월
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 2
억 4천만원을 기부했다.

BBS 불교방송 전진수 PD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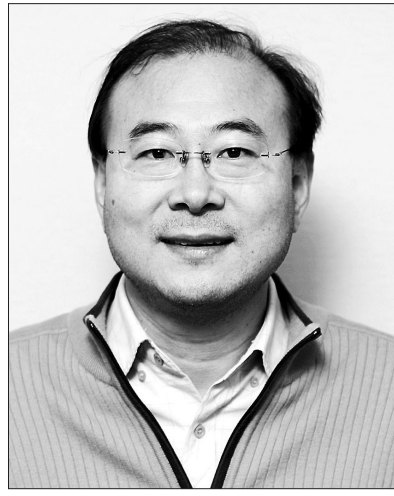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라디오편성부 전진수 PD가 2월
3일 오전 9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남궁미영(인천
안남고등학교 교사) 씨와 아들 전재성, 전재원씨가 있다.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모친상

이동격 현대불교신문사 부장의 모친 빈영순 씨가 2월
5일 새벽 별세했다. 발인은 2월 7일 입수됐다.

“대장경 대중화 원년으로 삼을 터”

대장경 각 학교에 보급하는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부모은중경〉 등 학교 30곳 전달
전문강사 파견 후 체험학습도 진행
대장경 기록관 등 상반기 추진 예정

“고려대장경은 문화재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지식의 정수로서 의미도 큼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대장경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보급이란 새
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창립 이후 대장경 연구에 매진해 온 고려
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가 체험학습용
목판 학교 보급 등 대장경 대중화에 나선다.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은 2월 5
일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국공립·사립 유
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효사상 고
취와 함양을 위해 목판 〈부모은중경〉과 〈삼
강행실도〉 각 1판을 목판으로 복제해 일선
학교에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범 소장은 “이제는 고려대장경이 어
떻게 활용돼 왔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대
장경 대중화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원력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 前소장 종림 스님에 이
어 고려대장경연구소를 맡은 이지범 소장
은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산증인이다. 이 소
장은 1984년 대학 입학 후 한국대학생불교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1993년 종림 스
님을 은사로 출가. 그 때부터 고려대장경 전
산화에 뛰어 들었다. 환속 후에도 조계종 사
회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에서 실무를 보
며 불법홍포에 앞장섰다. 2009년 12월부터
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언론 만들겠다”

미디어 붓다 신임 대표 법타 스님

“불교 언론은 신문, 라디오에서 TV, 인터
넷 언론으로 시대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불교 언론이 잘 돼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이 불교를 위해 마
지막 봉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 〈미디어 붓다〉의 새 대표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사진)이 취임했
다. 그간 〈미디어 붓다〉는 동출 스님을 위원
장으로 30여 스님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해 재정 등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안정적 재
정 지원과 회사 발전을 위해 법타 스님에게

대표직을 제안했고, 스님은 이를 수락했다.
법타 스님은 2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
에서 취임 소회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
혔다. 스님이 운영의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포교·신행·문화 언론이다.

“불교계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둠을 거두기 위한 비판은 필요
합니다. 아무진 비판은 하겠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과 대안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리고 불교의 밝은 면인 신행과 문화 등을 중
점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보급 목판은 GKI사회공헌재
단이 후원하지만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 불교계의 후원이 절실하다. 우선적
으로 연구소는 참여 신청을 받은 후 30개
학교를 엄선해 목판 보급과 함께 전문강사
파견 후 체험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퇴색된 우리의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핵가족화로 인한 문
제점에 노출 돼있는 아이들의 심성치유 차
원에서도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학교에서는 종교색이 드러나면 안되기에
〈부모은중경〉 등 효사상과 관련된 경전을
채택했다. 많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불교
를 비롯한 우리전통문화를 배우고 느꼈으
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대장경연구소 사업계획
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대장경 기록관
건립 등 연구소 자료의 보존을 위한 공간 확
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
장경연구소의 기반이 될 회원 모집 등도 계
획 중이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2차는 추후 공
지한다. 문의 및 신청은 고려대장경연구소
(www.sutra.re.kr)로 하면 되며 신청양식
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estjeon@
sutra.re.kr)로 보내면 된다. (02)926-
8144 노덕현 기자



이와 함께 법타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미디어 발전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역설하며 불교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기
도 했다.

“21세기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
는 수단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발전해
야 불교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반자고 동반입니다. 함께 정진합시다.”

팔만대장경 지켜낸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영결식 공군장으로 엄수, 국립현충원 안장

6.25 때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폭격으
로부터 지켜낸 장지량 前 공군참모총장(사
진)이 2월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
세. 고인의 영결식은 공군장으로 엄수됐으
며, 지난 4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
장됐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에는 제1전투비행
단 등을 맡아 미군의 해인사 일대 폭격명령
에 “1400년 된 문화재를 한 줌 재로 만들 수
없다”며 출격을 거부했다. 예편 후 예티오
피아 대사,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지냈고,
1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



는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남 2녀
가 있다.

수불 스님 부산BBS 사장 취임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부산BBS불교방송 신인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BBS불교방송은 2월 1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
리움관에서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고 사장 취임
식을 가졌다. 수불 스님은 이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인류
공영의 새로운 언론 문화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경주캠, 라오스서 해외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봉사단(단장 김의창)은 1월 10~15
일, 24~29일 2차에 걸쳐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라오스 비엔티엔 근교의 강카이 초등학교와 나
초등학교에서 학교 울타리 설치, 배수로 공사, 교사 지붕교체, 실
내의 페인트 작업 등의 활동을 비롯해 초등학교생들과 문화, 예술,
과학 등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김의창 동국대 경주캠 참사랑봉사단장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봉사단에 참여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동국
의 진면목을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故백남준 9주기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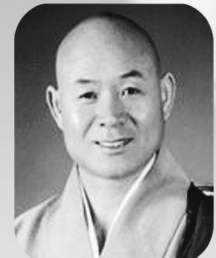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29일 법왕루에서 세계적인 비
디오 아티스트이자 불교신자였던 故백남준 선생의 9주기 추모
재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불교식 천도제 형식으로 봉은사 신도, 백남준 선생
한국측 대리인 도로시남(백스튜디오 대표) 비롯한 가족 및 지인
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Han Medicine,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s.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3월 5일까지
수시전형

주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